

“산업현장이 먼저 찾는 대학 만들겠다”

이응재 제13대 조선이공대 총장 취임

교육혁신·산학협력 강화 제시
현장 목소리 청취 등 소통 주력
AI·디지털 기반 실무교육 확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



이응재 조선이공대 생명환경화학공과 교수가 1일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조선이공대 제공)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해 학생이 졸업하는 시대에 선택받는 대학,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대학, 산업현장이 먼저 찾는 대학으로 성장시키 나가겠습니다.”

이응재 제13대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은 1일 취임 일성으로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이공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학 2호관 1층 조이미래홀에서 이응재 제13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진 광주대 총장, 서석해 강동대 총장, 이재용 영남이공

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교직원, 학생,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하는 오늘, 준비하는 내일, 새로운 대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

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역과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교수,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소통 중심의 대학문화를 구

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교육혁신 전략으로 AI·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와 산업현장 중심 실무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과감히 나서겠다”며 “취업 지원과 진로설계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생명환경화학공과 교수로 20여년간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또한 교무임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학과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이응재 총장은 지난 4월29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최종 임명됐으며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30년 5월31일까지 4년이다. /박선욱기자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 학생들이 광주음식 경연대회서 전원 수상

동강대학교는 “최근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학생들이 광주 감대중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광주음식 요리경연대회’에서 광주시장상과 금·동·은메달 등 참가 학생 전원 100%가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용(1년)씨는 ‘광주스트리트푸드’ 부문에서 전체 1위에 이어 ‘아시안 밀 듀오(누들 앤 라이스)’ 부문에서도 광주시장상 등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또 박철(1년)씨는 ‘아시안 밀 듀오’ 부문 금메달, 이정현(2년)씨는 ‘퓨전 파스타’ 부문 전체 2위, 김나연(1년)씨는 ‘광주스트리트푸드’ 부문 전체 3위 성적을 거뒀다.

동강대는 대회 심사위원들로부터 광주 로컬 식재료와 대표 음식을 접목한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지역 외식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실무 교육 ▲글로벌 감각을 갖춘 로컬 셰프 양성 프로그램 등 RISE 사업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오명진 학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강대 학생들이 지역 식품 산업을 이끌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RISE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초록우산, 30·40세대 광주청년후원회 출범

초록우산 광주지역분부는 1일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30·40세대로 구성된 ‘광주청년후원회’를 최근 공식 창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부 참여율이 낮은 30·40세대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기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 청년 20명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후원회는 30·40세대의 기부 참여 제고와 함께 광주 자립준비청년 및 인재양성 아동 지원을 목표로 정기후원, 기부 캠페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이자 광주 소재 철강제조 기업 대표인 김창승(주대로스틸 회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며 “광주청년후원회를 계기로 지역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청년정책안내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은 “최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 안내 행사인 ‘썩알데이’를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고용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청년고용정책 안내 부스를 비롯해 워데이클래스 체험 부스, 명사 특강 등이 운영됐다.

참여 청년들은 정책 안내 부스를 돌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슈링클스 만들기, 키캡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또 tvN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한 김봉중 교수의 특강과 경품 추첨 이벤트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윤찬용기자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투표 참여 캠페인’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0일 동안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1일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총 30회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표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광주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 최하위권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 SNS 홍보, 청소년 역사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에 광주 동구는 사전투표에서 광주 평균 2

7.83%를 웃도는 32.19%를 기록하며 광주 5개 지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센터는 46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 기간을 전후해 ‘오월 정신 계승해 K-민주주의를 꽃피우자’를 슬로건으로 투표 참여 운동도 전개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6월3일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항훈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캠페인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광주지방보훈청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해외 파병용사의 날(5월29일)을 맞아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파병용사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연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이국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파병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투기 단기기동과 공군 의장대 도열

로 예우를 갖췄으며 파병부대기 입장, 추억의 영상 시청, 장관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해외 파병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재영기자

목포보호관찰소, 지체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최근 ‘문화의 날’을 맞아 소망장애인복지원 시설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 문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목포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손잡기’ 자체 성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영화관에서는 휠체어석 배치 등 장애인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현장에 투입해 영화관 이동부터 관람 전 과정을 1대1로 밀착 보조했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월 문화의 날마다 영화 관람 지원을 추진해 장애인



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박갑수 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봉사자들의 온기가 더해져 뜻깊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증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나주JC ‘자녀와 함께 떠나는 독도 탐방’ 운영

나주시는 “최근 나주청년회의소(나주 JC)와 함께 ‘자녀와 함께 떠나는 우리나라 독도 탐방’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JC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 영토와 주권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교감을 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에는 나주에 거주하는 학생 15명, 학부모 15명, 인솔 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으며,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 등을 방문했다. 김용기 나주JC회장은 “이번 탐방이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깊게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역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중환기자



강동렬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이번 독도 탐방은 단순 관광이 아닌 실질적인 역사와 영토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중환기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해남 오디농가 일손돕기

(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해남 문내면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 지원과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고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사무국 직원 9명이 참여해 수확 절정기를 맞은 오디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어 농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부서 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고숙주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일손돕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지역 농업 현장



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2027 국제농업박람회가 지향하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합동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찾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는 생활안전 VR 체험교육을 비롯해 안전 OX퀴즈,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주제로 한 닌도 게임 등이 운영됐



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과 생활 속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높이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찬용기자